

# 첼로에 봄 선율을 싣고... 서울실내악축제 '첼리시모' 개막

4월 22일~5월 4일까지 세종체임버홀 등 3곳서 열려  
총 51팀 58인의 연주자, 첼로가 포함된 무대 선보여

제17회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가 4월 22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5월 4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윤보선 고택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집행위원회는 올해 행사를 4월 22일 개막공연과 23일, 27일은 세종체임버홀에서, 5월 1일과 2일은 윤보선 고택의 야외무대에서, 나머지 일정은 모두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축제 주제는 '첼리시모!' (Cellissimo!)다. 이는 첼로의 'Cello'와 강조를 뜻하는 접미어인 '-ssimo'가 결합된 단어로, 실내악 음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악기인 첼로를 집중 조명한다. 13일간 이어지는 12회 공연을 위해 국내 외에서 활동하는 총 51팀 58인의 연주자들이 첼로가 포함된 공연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강승만·김민지 등 첼리스트 9명과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대니 구, 피아

니스트 김다솔·문지영, 신박 듀오,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파르멧, 바리톤 이응광 등이 무대를 꾸민다. 특히 5월 1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리는 '가족음악회'에는 5명의 첼리스트가 출연해 첼로만으로 앙상블 연주를 선사한다. 첼로 앙상블 연주와 더불어 유명 클래식 음악을 편곡해 연주하는 젊은 피아노 트리오인 레이스 클래식스 연주 등으로 재미있는 콘서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축제는 특별히 사전 부대행사인 '프린지 페스티벌'의 출연자를 공모한다. 주변부를 뜻하는 '프린지'는 축제 초기

부터 축제의 사전 행사로 박물관, 미술관 등은 물론 인사동, 남산타워 등 서울이 자랑하는 랜드마크 곳곳에서 진행한다. 집행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공개 모집 하는데, 국내 음악학도와 아마추어 시민 연주단을 대상으로 동영상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다. 공개 모집 첫해이다 보니 형식이나 구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자유 주제로 동영상 오디션을 통해 출연팀을 선발한다. 응모기간은 25일까지다. 이두경 기자 dklee@skyedaily.com



2022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프린지 페스티벌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선발되신 1팀에게는 4월 초 열리는 SSF 프린지 페스티벌의 연주 기회를 드립니다!

자격과 기간  
응모 자격 - 피아노를 제외한 편성의 클래식 실내악 자유 구성 (별도 편성시 추가 접수 있음, 대중 음악 악기 혼합 편성 가능) - 이 외의 자격 제한 없음  
응모 기간 - 3월 25일(금) 18시까지 (프린지 페스티벌은 4월 초 주말 진행 예정)

## 아시아 최대 화랑 '탕 컨템포러리 아트' 한국 상륙

1997년 방콕 시작... 베이징, 홍콩 이어 서울 진출  
첫 개관 자오자오 개인전 '평행지도' 내달 16일까지

아시아 최대 규모 화랑인 '탕 컨템포러리 아트(Tang contemporary art)'가 한국에 진출했다. 1997년 방콕을 시작으로 베이징, 홍콩에 이어 서울에 첫 개관 전시를 시작했다. '탕 컨템포러리 아트'는 서울 청담동 송은아트센터 지하 2층에 문을 열고 첫 개관전으로 자오자오(Zhao Zhao)의 개인전 '평행지도(指導)'를 12일 개막해 4월 16일까지 개최한다. '탕 컨템포러리 아트'는 세계적인 작가이자 중국 최고 작가 아이 웨이웨이(Ai Weiwei)를 비롯해 △유에민쥬(Yue minjun) △우국원 쉐넌단칭(Chen Danqing) △에가미 에츠(Egami etsu) △조나스 버거(Jonas bugert) △키티 나로드(Kitti narod) △공칸(Gongkan) △우웨이(Wu wei) △헤리 도너(Heri Dono) △주진스(Zhu jinshi) △양보두(Yang bodu) △아델 압메드(Adel Abdessemed) △니키드 생 팔(Niki de Saint Phalle) △AES+F △황용핑(Huang Yongping) △리우샤오둥(Liu Xiaodong) △양지예창(Yang Jiechang) △순유안&



자오자오 '평행지도(指導)' 대표작. 뉴스스  
펑유(Sun Yuan & Peng yu) △아델 압메드(Adel Abdessemed) 등 세계적 작가들이 소속돼 있다. '탕 컨템포러리 아트' 소속 '자오자오'는 이번 서울 전시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작업한 대표 시리즈와 함께 중국 신장문학을 주제로 인권 문제를 고발해 온 관심을 받고 있는 면화(cotton) 시리즈의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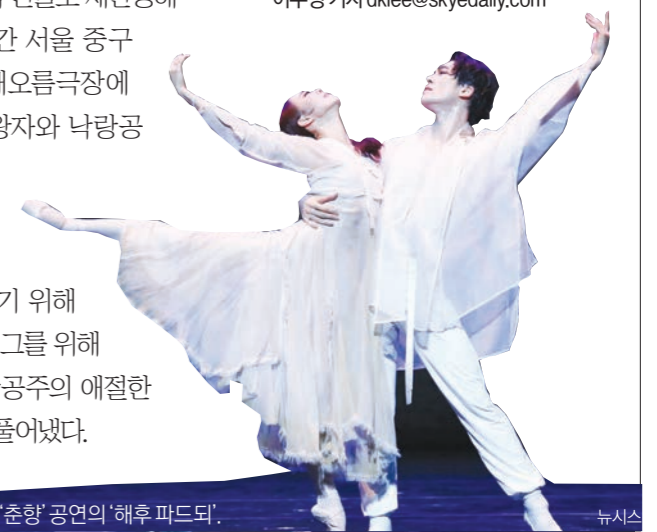
'탕 컨템포러리 아트'가 송은아트센터 지하 2층에 들어선다. 뉴스스  
그는 아이 웨이웨이의 제자이자 '제2의 아이 웨이웨이'로 촉망받는 작가로 루비비통과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반중 체제와 개인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작품을 주로 다룬다. 2019년 AAC (Award of Art China)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롱미술품 전시로 크리스티(Christie's)가 뽑은 '2022년 아시아-태평양-중동 및 남미 지역 최고의 전시'에 뽑히기도 했다. 한편 '탕 컨템포러리 아트'가 동지를 트는 서울 청담동 송은아트스페이스는 변형이 가능한 150평 규모의 넓은 전시장으로, 스케일 있는 작품 전시에 최적화된 곳이다. '탕 컨템포러리 아트'는 아시아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홍콩 H퀸즈(H Queen's)에 탕 아트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아트북과 전시 작가에 대한 도록 제작과 함께 전시 공간에 대한 고찰, 작가 지원 등의 노력을 통해 더 좋은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다각도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 진출을 계기로 많은 한국 작가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이두경 기자 dklee@skyedaily.com

## '호동·춘향'을 오페라·발레로

동서양 문화예술 조화... 화려한 봄무대 장식

2000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났다고 전해지던 이야기와 조선시대 고단한 삶에 지친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던 이야기가 서양의 오페라와 발레를 덧입고 화려한 봄 무대를 장식한다. 국립오페라단이 창단 6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오페라 '왕자, 호동'과 유니버설발레단이 선보이는 '춘향'이 관객들과 만난다. 두 작품은 한국에서만 접할 수 있는 클래식 작품인데다가 사랑 이야기로 봄날 관객들 마음을 설레게 한다. 삼국사기에 기록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창작 오페라 '왕자, 호동'이 현대적 연출로 재탄생해 지난 11~12일 양일간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됐다.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애절한 비극적 대서사를 담은 오페라다. 낙랑의 땅을 되찾기 위해 애쓰는 왕자 호동과 그를 위해 자명고를 찾는 낙랑공주의 애절한 스토리를 탄탄하게 풀어냈다.

고전 속 춘향이는 발레 토슈즈에 한복을 입는다. 춘향과 몽룡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발레로 펼쳐진다. 유니버설발레단은 한국의 아름다운 고전에 발레의 품격을 입힌 창작 발레 '춘향'으로 올해 시즌의 문을 연다. 18일부터 20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지난 2007년 초연한 '춘향'은 동서양 문화예술이 조화됐다. 차이콥스키의 숨겨진 명곡에 편곡의 손길이 더해졌고, 아름다운 한복의 선과 색을 보여준다. 작품의 백미는 춘향과 몽룡의 세 가지 유형의 파도(2인무)다. 이두경 기자 dklee@skyedaily.com



'발레 '춘향' 공연의 '해오 파도'.

# 내일의 부 전 2권

1권 알파편, 2권 오메가편

폭락장에서 증명된 조던 김장섭의 통찰력!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다면 이 책에 답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99.9% 부자 되는 법,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천기누설급' 부자 매뉴얼!

이 책은 이론만 그럴싸한 책이 아니라, 저자가 직접 지난 수십년 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분석하고, 그 자신이 직접 이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그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JD 부자연구소'에서 회원들이 부자에 활용하고 있고,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완벽한 부자 되기 비법이다. 부동산부터 주식, 채권, 환율까지 국내투자를 넘어 전세계를 대상으로 내 손 안에 넣고 가장 안전하면서 오롯이 수익을 제갈량처럼 딱 주무르듯 할 수 있는 신묘한 계획을 제시한다! 당시는 매뉴얼에 따라 기계처럼 사고팔기만 하면 된다. 부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책이라 할 수 있다.

"뻔할 것이라 함부로 예측하지 마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이 책은 부자 티켓 그 자체다!"

출간 즉시  
전서점  
베스트셀러

조던 김장섭 지음 | 각권 16,000원  
트러스트북스



조던 김장섭의 또다른 필독서! (각권 16,000원)

-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
- <4차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미래>
- <한국의 1000원짜리 땅 부자들>
-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도서 전권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관련 문의는 02)322-3409

